

사설

한국종교에 빠아픈 지적

종교는 인간 양심의 최후 보루이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희망의 근원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종교는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맑고 깨끗해야 하며, 또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지니고 이 사회를 이끄는 기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바로 종교계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4월 26일 '종교 NGO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종교권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성 종교는 구조 조정 1순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한국 종교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아픈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미나에서 지적된 기성 종교의 많은 문제들은 기성 종교가 과연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를 되물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종교계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인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운동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성 종교가 스스로의 내부적 모순과 타락으로 몰락하지 않으려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러한 아픈 소리를 받아들여 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자들도 종교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정 노력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종교계의 정화란 것은 현실의 괴로움을 양산하는 근원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전향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올바른 이상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종교를 말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러한 근원적 힘을 찾지 못한 채 현실의 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양상, 아니 그러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적 모습을 보이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정화를 이룰 올바른 추진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과 이상으로 항상 세상을 밝히는 청정한 불의 역할을 되찾아가는 노력 속에서 종교계 정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납골시설 정부지원 필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고, 자연환경의 보전, 호화분묘로 인한 국민간 위화감을 줄이는 방안은 화장의 확산과 납골 시설의 활성을 늘리는 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민들의 화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를 보면, 59%가 화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지역의 사망자 화장률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50%를 넘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화장장과 납골당(묘) 등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기도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2010년에는 3만기가 가까운 분묘가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다. 그런데, 묘지난을 겪을 것이 현하며, 묘지난 해소 방안으로 납골당(묘) 말고는 효과적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납골당(묘)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라며 극구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몇몇 사람은 아예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납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교통 유발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납골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을 일반적으로 맞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생각을 살짝 바꾸면, 납골시설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쓸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납골시설 설립자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가 있어야 한다. 실제 장학회 설립을 조건으로 주민들과 납골시설 건립을 합의한 사례도 있다.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납골시설로 인한 세수의 일정액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 잠식을 막고,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민간의 의지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서 나타나는 납골시설 중도 포기 사태를 사찰과 지역주민 사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덧붙인다.

'조선불교 조계종' 세미나

창립 60돌 맞아 내달 5일 조계사서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최초로 사용한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과 조계사는 다음 달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관련기사 3면)

조선불교조계종은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창립한 한국불교사 최초의 근대적인 교단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초대 종정에 방한암, 종무총장에 이종우 스님을 추대하였으며, 전국 본말사의 승적과 토지 관리, <조계종보> 간행 등

을 통해 중무 활동을 했다.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쓴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해방을 맞으며 조선불교 조계종 지도부의 일제 협력 등에 대해 비판하는 불교혁신운동맹과 분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세미나를 기획, 준비하고 있는 기획실 박희승 기획과장은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 과정 때문에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선 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과

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 및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토론 강인철 한신대 교수,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종정과 종무총장을 중심으로' 박희승 총무원 기획과장, 토론 김순석 고려대 강사,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법제도를 중심으로' 손성 동국대 법대 교수, 토론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개교 95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7일 본관 앞 중앙전대관에서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서문각 전총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보살 코끼리상제막식'을 개최했다.

국제학술회의·코끼리상 제막

동국대 개교 95돌 기념

지난 8일로 개교 95주년을 맞는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기념식,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동국대는 7일 오전 11시 중앙당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과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서문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95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정오에는 본관 앞 중앙전대관에서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막식을 가졌다. 불 법 승 삼보를 뜻하는 암수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 3마리로 구성된 코끼리상은 지난해 9월부터 조승환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에 의해 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의 자매대학인 일본의 용곡대학, 고마자와 대학, 경도불교대학, 오타리대학,

중국의 중앙회학원, 인도의 네루대학 등 8개 대학 총장 등 16명이 축하사절로 참석했다.

또한 동국대는 개교기념일인 8일부터 11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12개 국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합성금속의 양자수송현상 및 양자기능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존 로버트 슈리퍼(미국), 크라우스 폰 클리칭(독일) 등 노벨물리·화학상 수상자 5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동국대는 25일부터 2일간 국제전자불전학회(IEBTI)를 개최하고, 28일에는 동문 신약인 박영석 씨의 K2 등반 출정식이 갖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로체봉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8,000급 고봉 13개 등정에 성공해 14회 완등에 한 개만을 남겨 놓았다.

오종욱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김대통령 BBS11돌 대담

김대통령은 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인권신장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는 불교계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역감정 등으로 국가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종교계가 합의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인터넷 관리자 첫 연수

6월 8~9일 진흥원

대한불교 진흥원은 6월 8일~9일 양일간 다보수원원에서 교계 처음으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인터넷 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인터넷 불교 포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불교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 인터넷 포교의 방법론과 사이트 현황, 미래 전망 및 공유 방안 모색을 통해 불교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연수회에 앞서 불교 인터넷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불교인터넷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불교계 인터넷 관리

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20.9%에 불과하고, 불교콘텐츠 개발도 47%만이 자체 제작했다고 응답해 불교사이트의 질적 성장이 급선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계사이트를 운영하는 300명의 관리자들의 연령대로는 40대(44.2%), 성별로는 남자(79.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행활동 기간은 10년 이상(68.6%)이 주류를 이루며, 인터넷 경력은 62.8%가 4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김승철교수(중앙승가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종단 화합 안정풍토 만들겠다"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21대 총무원장 혜초스님과 부원장 대운스님 취임식(사건)이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취임식은 종사이운, 삼귀의례, 발원문 낭독, 법어, 악력소개, 취임사, 축사,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덕암스님은 종회의장 윤곡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새로 총무원장 스님과 부원장 스님을 구성원으로 모든 종도들이 단결 화합하여 종단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에 다같이 정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무원장 혜초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 화합과 각종 제도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종단의 행정을 단정하게 운영하며 대중에 대해 양호하며 종단 질서와 승려의 기강 차원에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종도들의 화합 단결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김기재 민주장 연동회장, 함중환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등이 축사를 통해 혜초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포교전문스님 40명 배출

조계종교육원(원장직대 계상)은 11일부터 19일까지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에서 '2001년 포교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포교전문스님 40명을 배출했다. 김원우기자

조계종 국장급 인사

사회국장 헤림스님

감사국장 덕원스님

조사국장 종홍스님

불학연구소장 범포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사회부 사회국장

헤림스님(사건)을 임명하는

동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기획실 감사국장 범포스님, 감사

국장에 호법부 상임감찰 덕원스

님, 호법부 조사국장에 사회국장

종홍스님을 전보 발령했다.

사회국장 헤림스님은 도형스님

을 은사로 봉선사에서 출가, 8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했다. 봉선사 호법, 기획, 총무국장

을 역임했다. 현 자재암 주지.

정성운 기자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모집 및 전영(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슬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에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다,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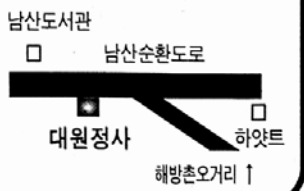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